하늘 독상 받은 자, 세상 겸상 받은 자

(민1:1~54)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4.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 독상 받은 자, 세상 겸상 받은 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늘 독상 받은 자, 세상 겸상 받은 자'
한식상차림의 가장 큰 특징은 음식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용어로 "공간전개형"이라고 합니다. '공간전개형'은 먹게 되는 모든 음식을 상위에 한꺼번에 차려놓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서양식이나 중국식은 "시간전개형"이라고 합니다. 공간전개형과 시간전개형이 어떻게 다른지 금방 깨달음이 오시지요? 양식과 중식을 정식으로 먹으려면 각각의 음식이 시간차를 두고 한 접시씩 나오게 되는데 한식은 한꺼번에 다 차려놓게 되고 종류도 5첩 반상, 7첩 반상, 9첩 반상, 12첩 반상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정식 집에 가면 시간전개형으로 순서대로 나옵니다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한 상에 차려놓고 먹습니다. 이러한 공간전개형의 음식문화 형태로 인해서 또 하나의 독특한 부가적 특징이 겸상입니다. 공간전개형으로 온갖 반찬을 차려놓은 밥상을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서 반찬을 공유하여 밥을 먹습니다. 서양식사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함께 하지만 겸상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겸상이라는 것은 찌개나 찜, 장류(간장)나 각종 밑반찬을 놓고 자기의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떠먹는 것입니다. 서양은 같은 테이블에서 먹는다고 해도 음식을 담아놓은 그릇을 돌려가면서 자기가 떠서 먹지만, 우리는 무슨 반찬이든지 한 그릇에 놓고 같이 숟가락으로 떠먹고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 이 겸상의 제도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고 합니다. 빵 한 조각을 먹어도 각자의 몫을 먹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각자의 숟가락으로 떠먹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위생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저의 집사람하고 저하고 짜장면을 먹으면 저는 나중에 짜장면에 물이 흥건하게 고입니다. 집사람은 짜장 소스가 쫀득쫀득한 채로 남아있는데 저는 녹말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먹기만 하면 질퍽해집니다. 침이 묻는다는 건데 찌개나 반찬에 제 침이 얼마나 묻겠습니까? 그렇게 겸상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공간전개형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음식에도 독상(외상)의 전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804년에 김홍도의 그림 중에 "기로세련계도(耆老世聯契圖)"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기로(耆老)'는 60~70세 된 노인을 말합니다. '세련계(世聯契)'는 그런 분들이 모인 모임을 말합니다. 개성에 있는 송악산 만월대에서 어르신 64분을 모시고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아마 개성에 새 관리가 부임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베푸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백 명이 넘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는 그림입니다. 그 잔치에서 보면 64분의 어르신들이 독상을 자기 앞에 받고 잔치가 진행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 독상의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상 위에 공간전개형으로 음식을 한꺼번에 차려놓는 것입니다.

이 겸상과 독상의 의미가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뒤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후 2개월 뒤에 시내 산에 도착했고, 그 동안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었는데 성막 건립을 해서 낙성과 봉헌식을 하고 각종 제사법과 율법을 주신 모든 일이 10개월 동안 시내 산에 머물 때의 일들입니다. 이제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이제 가라고 하셔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게 되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뒤에 정탐꾼들이 불 신앙적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시 가나안을 쳐들어가기 직전의 요단 동편에 도달하기까지를 민수기가 담고 있고, 오늘 계수된 20살~60살까지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여 육십만 삼천 오백 오십 명을 세웠는데, 가나안 정탐의 불 신앙적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선민들이 동요되어 하나님을 원망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38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준비되는 과정까지 민수기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이한 점은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므로 군대를 편성해야 되고, 군대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인 20~60살의 장정의 숫자를 보고하라는 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 수를 세라고 말씀하신 날짜가 1절에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로 나오고 18절을 보면 '같은 날 육십만 명의 계수가 완성이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것인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육십만 명을 하루에 셀 수가 없습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한 사람씩 뽑아서 그

들이 그 조사를 관할하는데, 그게 하루에 집계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느냐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건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갹출할 때에 20~60세의 모든 장정의 머릿수대로 각자가 반 세겔씩 내게 됩니다. 이 때 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거둘 때에 그 속전을 가지고 성막 건립의 비용이 충당되었는데, 그것이 한 달 전입니다. 지금은 성막이 완성된 상태로 그 때 이루어진 인구 조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이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건립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냈다'는 것은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내 것으로 삼는 자들로 오늘 계수 된 육십만 명은 성막을 내용적으로 내 것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을 해야 하므로 군대가 필요한데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위해 준비된 군대의 특징과 그 군대들에 의해서 치러지는 전쟁의 특징은 겸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위해서 정해진 땅이 있고 정해진 자원이 있습니다. 지구라는 하나의 상을 겸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겸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사소하기 그지없는 일인데 제가 60이 다 되어가도록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날인가 할머니와 둘이서 점심을 먹는데 전날 먹던 된장찌개를 데워서 먹었습니다. 감자를 넣은 된장찌개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꼭 내가 숟가락으로 뜨려고 했던 감자를 떠서 드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내 감자 먹어'라고 대들었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는 무심코 찌개의 감자를 떠드신 것인데 깜짝 놀라시면서 '옜다'하고 감자를 다 먹으라고 주십니다. 그 외에도 형들하고 삼형제가 같이 컸으므로 생선이나 고기가 올라오면 신경전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나중에는 딱딱 나눠주셨어요. 이것이 세상일의 축소판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데 남이 먹거든요. 이게 다 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쟁은 정해진 땅과 정해진 자원 중에서 우리 것으로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독도를 놓고 계속 싸웁니다. 독도가 열댓 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면 까짓것 하나 줘버리고 우리는 더 좋은 독도를 두세 개 받으면 좋은데 독도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싸움이라는 것이 원래 말도 안 됩니다. 왜 할머니가 먹는 감자를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까? 왜 우리나라의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느냐는 것입니다. 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해 바다를 일본과 우리가 겸상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태평양을 미국과 중국이 겸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시고 그 군대편성을 위해서 계수를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전쟁을 치를 자들을 골라내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나중

에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에 나오므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큰 오해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립할 때에 계수된 그 숫자를 그대로 군대에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십만을 계수하라고 했지만 그 날 계수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성막건립 때의 계수된 숫자를 쓰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 독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로세련계도'라는 김홍도의 그림에서처럼 64명의 노인들이 다 자기의 독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아주 욕심쟁이 노인이 있어도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회사에 입사동기 10명이 들어가면 대리 자리는 7개 밖에 없고 과장 자리는 5개 밖에 없고 차장 자리는 3개 밖에 없고 부장 자리는 2개 밖에 없으니 8명이 떨어져나가게 됩니다. 회사의 자리가 겸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가나안 복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이 겸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빼앗으려면 저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이 오해를 막기 위해서 성막건립 때에 계수된 내용을 그대로 군대의 숫자로 편입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내 것으로 삼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된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은 하늘 독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고 분향단의 기도의 의미가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추구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어떤 사람과도 겸상을 할 필요가 없고, 선민들끼리 똑같이 하늘을 갖고 싶어 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선민의 숫자가 무한할 수는 없지만 선민들이 먹고 배불러야 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먹으라고 독상을 차려놓은 것이 성막의 사건으로 속전을 통해서 상징되는 대로 그 성막의 내용이 각자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독상을 받은 자들이 육십만 명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늘 독상을 받아서 배불렀느냐 아니냐는 나중의 문제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자체의 의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했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먹으라고 하늘 독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아요. 나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함의 근거는 독상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끝내라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됐다가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독상을 받고 배부른 자가 아니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과정으로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수를 계수하는데 성막 건립 때에 계수되었던 수를 그대로 군대의 숫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암묵 속의 지시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하늘 밥상을 차려줬는데, 하늘 밥상으로 배부르지 않은 자를 절대로 전쟁에 개입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늘 밥상으로 배부르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데, 그 땅에 있는 것들로 가나안 사람들과 겸상한 상태에서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전쟁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를 쓰신 이유도 하늘 밥상을 독상으로 받은 자들을 당신의 뜻을 위해 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늘 독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름의 문제, 만족의 문제, 보람과 기쁨의 문제가 끝이 나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겸상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겸상을 하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을 자꾸 헐뜯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주목 받고 모든 교회의 재정이 자기에게 오도록 계속 헐뜯는 것입니다. 세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든지, 말로 하는 전쟁이든지, 회사에서의 전쟁, 입시 전쟁이든지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서울대학의 입학 정원은 정해져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고3학생들이 우선은 서울대학을 원하고 겸상하고 있으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쓰임 받을 것을 염두에 둘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독상 받아서 하늘로 배부른 자들을 당신의 군대로 편입시키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내 배를 채우려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겸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배불러서 세상에 겸상할 필요가 없어요.
열 명의 입사 동기들이 싸우는데 그 중의 한 명이 선민이고 하늘 독상으로 배부른 자가 회사를 위해서 가장 탁월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대리 자리 놓고 안 싸우고, 과장 자리 놓고 안 싸웁니다. 오직 내가 하늘 독상 받고서 세상에 나간 이유는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가야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립 때에 계수된 그 숫자를 적용하도록 암묵적으로 지시하셨고, 계수가 단 하루 만에 끝날 것을 알고 지시하신 것은, 성막은 내 인격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고,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서 배부르고,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 모든 것들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사용하면 되는데 가치 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할 때에 그것이 배설물이 된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눈이 밝아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에 편입시키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면 부딪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박해의 형태로 나타나도 굴하지 않고 순

교한다면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또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적인 의미에서 압도할 수도 있는 승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늘 독상을 받고 배불렀느냐, 아니면 세상을 겸상한 자리에서 배 부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겸상을 통해 배 부르려고 하면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하나님 제가 아홉 명의 입사 동기들 보다 더 우월한 성과를 냄으로 빨리 대리에 진급하게 하시고, 대리에서 또 과장으로 승진이 누구보다 빨리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나오게 되고 '우리 자식이 대학 입시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1등 하게 해주시고 입학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늘 독상으로 가장 좋은 상태의 거룩함과 가장 완벽한 배부름이 내 앞에 펼쳐졌는데 안 먹는다면 도대체 세상을 왜 사는 것입니까? 세상을 살 때 세상과 겸상을 하며 배 부르려고 하니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불안과 걱정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득가득 쌓이는 것입니다. 세상과 겸상하면 반드시 걱정을 먹게 되고 근심을 먹게 되고 우울함을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 독상을 받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먹는 것이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로 배불러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먹으면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 사는 것으로 약속대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배불러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싶고, 갖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먹고 싶은 것 아닙니까? 마음에 담고 싶어 할 때마다 '나는 세상과 겸상하지 않는다.'고 십자가를 붙잡고 죽어야 합니다.
돈 벌려면 남의 주머니에서 꺼내야 하니 거짓말로 광고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건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 독상 받고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의성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마6:30절에 주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시고 마5: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라고 하십니다. 이 과정이 물건을 생산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되기 위하시는데, 하늘 독상 받고 배부른 나를 쓰실 때에 저 사람들의 돈을 긁어내겠다는 마음을 안 먹어도 장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차려진 하늘 독상으로 배부르고 보는 것입니다.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내 몫으로 정해진 것이 적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겸상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겸상은 서빙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 독상 받지 않으면 하늘 군대에 편입될 수 없고, 하나님의 쓰임에 붙잡힐 수가 없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육십만 삼천 오백 오십 명이 모두 성막을 내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성막에 생명의 속전을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은 내게 차려진 하늘 독상입니다. 하늘 독상을 받은 자는 경쟁이 필요 없는 자들이고, 내 배를 채우겠다고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영원토록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편입시켜서 군대를 만드시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가 그 시작을 위해서 계수하라고 하신 것이고, 다시 말해 하늘 독상을 받은 자들을 추려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겸상한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내 앞에 베풀어주신 하늘 독상은 외면한 채, 세상 겸상의 자리를 못 벗어나고 세상 것으로 경쟁하듯 내 배를 채우겠다고 살았던 모든 삶이 이제는 중단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독상으로 배부른 자들이 됨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